



12년

전통문화전당 '메타버스'로 구현

2023년 5월 2일 화요일 (음 3월 13일)

제325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원 2길 6번지

전주매일

통계데이터 전북센터 개소 '준비 끝'

전북도·통계청·국민연금공단 등 4개기관 협업
도내 이용자 수요 충족·지역간 데이터 격차 해소

전북도와 통계청, 국민연금공단,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등 4개 기관은 8일에 예정된 통계청 '통계데이터 전북센터' 개소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통계데이터 전북센터는 전북테크비즈센터 6층 금융혁신빅데이터센터 내에 8석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전북에 통계데이터센터가 설치된 데는 지난해 10월 당시 조봉업 행정부지사 전북도청을 방문한 김대호 호남

지방통계청장에게 '통계데이터센터' 설치를 건의했고, 이후 김관영 지사와 한훈 통계청장 면담을 통해 유치가 성사됐다. 통계데이터센터는 서울 4개소, 광역 6개소(대전, 부산, 광주, 대구, 세종, 제주)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도(道) 단위 설치는 3월 제주에 이어 두 번째다. 통계데이터 전북센터는 각종 통계등록부 등 행정통계자료(17종)와 인구주

택 총조사 등 통계조사 마이크로데이터(50종), 통신·카드·신용 등 민간 데이터(35종)를 포함 총 102종의 자료를 제공한다. 거기에 통계데이터 전북센터가 위치한 '금융혁신빅데이터센터'는 국민연금공단의 내부데이터를 비롯해 금융데이터, 공공기관 개방 데이터 등 125종의 다양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데이터 활용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더불어 지역데이터 허브로서 맞춤형 정책지원에 위한 다양한 연구·분석이 수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데이터 연계·분

석 활성화 등을 통한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도 뒷받침할 전망이다. 센터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이용자는 통계 데이터센터 누리집(datakosta.go.kr)에서 이용 신청 후 센터를 방문해 다양한 데이터를 직접 분석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센터에 상주하는 통계청 분석 전문가에게 분석 서비스를 의뢰할 수 있다. 한편, 금융혁신빅데이터센터는 올 1월 데이터인삼구역으로 지정된 금융 관련 빅데이터센터로 전라북도와 국민연금공단이 협업해 구축했고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운영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지나해 국정과제 관련 목표 성실히 이행
도, 지자체 합동평가 전국 1위

도·시군 소통·협업 '결실'
김관영 도지사 "올 한해도
도민 체감 행정서비스 제공
도정 역량 집중해 나갈 것"

전북도가 지난해 국정과제 관련 목표를 가장 성실히 이행한 지자체로 평가됐다. 전북도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정량평가 부문(2022년 실적)에서 전국 1위의 성적으로 우수지자체에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17개 시·도의 국가유무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 주요시책에 대한 추진성과를 평가하는 지방자치단체 대상 종합평가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정부 차원의 유일한 종합 평가이기도 하다. 평가 결과에 따라 각 지자체의 행정역량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행정안전부의 재정인센티브를 차등 지급 받게 되는 만큼 각 지자체는 우수한 성과를 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갈수록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올해 평가는 정량지표 82개(목표달성도) 정성지표 22개(우수사례)로 진행됐으며, 시도 간 상호검증과 중앙부처 및 합동평가단의 실적검증을 거쳤다. 전북도는 올해 정량평가 부문에서 전체 82개 지표 중 80개 지표를 달성해 국정 과제 추진 전반에 걸쳐 고른 성과를 거뒀다. 이에 목표달성도

97.6%를 기록, 전국 평균 90.9% 대비 6.7%가 높은 역대 최고의 성적으로 전국 1위에 올랐다. 정성평가 부문에서는 22개 지표 중 △양성평등 조직문화 우수사례(양성평등(GENDER EQUALITY) 행복나눔 등행!),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및 운영개선 우수사례(신규팀 창단 확대 및 집중훈련 환경조성으로 도약하는 전북체육),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및 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마음을 잇다 마을을 잇다. 함께 성공하는 농촌공동체) 3건이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그간 전북도는 합동평가에 대비하고자 상시적이고 주기적인 실적관리, 도·시군 합동 워크숍, 전문가 1:1 컨설팅, 보고회 개최 등 평가 관심도와 이해도 제고에 힘써왔다. 특히 도와 시군 간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으로 실적 향상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였다. 더불어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 인센티브(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함께 노력한 시군에 배분하고, 내년도 평가에 철저히 대비할 예정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새로운 전부를 만들겠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도민을 최우선으로 도정 운영에 매진한 결과로선 8기 첫번째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우수지자체 선정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또한 "맑은바 자리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해 준 공직자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다"며,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올 한 해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한 행정서비스를 적극 발굴하고 제공하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해 나간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교육대학교가 1일 교내 황학당에서 개교 100주년 기념식을 연 가운데, 이주호 교육부장관, 김관영 도지사, 서거석 교육감, 박병춘 총장 등 참석자들이 모여 기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1일 교내 황학당에서 개교 10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주호 교육부장관을 비롯해 약 300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대학 연혁 보고, 100년사 전달식, 박병춘 총장 기념사, 주요 내빈 축사, 공로패 및 감사패 시상식, 비전 선포식 축하공연, 교가제창 순으로 이뤄졌다. 박병춘 총장은 기념사를 통해 "참다운 교육을 실현하는 조동교원 양성대학,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며 상

'상생 가치 구현 대학으로'

전주교대 개교 100주년 기념식
100년사 전달식·총장 기념사·비전 선포식 등 진행
생 가치를 구현하는 대학 구성원이 행복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대학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이주호 장관, 김관영 도지사, 서거석 교육감, 김윤덕 국회의원, 박관우 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대구교육대학교 총장), 박진배 전북지역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전주대학교 총장), 이한홍 전주교육대학교동

창회장 등의 축사가 이어졌다. 특히 전주교대 재학생 어학연수를 위해 업무협약을 맺은 미국의 인디애나 주립대학교 크리스토퍼 울슨 총장이 전주교대 개교 100주년 축하 영상을 보내왔다. 한편, 이날 그동안 대학 발전을 위해 남다른 열정과 사명감으로 헌신한 내부 구성원 6명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초등학교원을 양성하는 명문 대학으로 널리 알려지게 기여한 이한홍 전주교대 동창회장과 오용호 변호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정은성 기자

도,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비상방역체계 운영

이달부터 9월 30일까지
전북도는 기온·습도의 상승 장마로 인해 병원체의 증식이 쉬워지는 하절기가 도래함에 따라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을 감시·예방하고자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은 콜레라, 장티푸스, A형 간염, 살모넬라, 장병원성대장균, 노로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가 원인이다. 주로 오염된 물이나 식품 섭취, 불충분하게 조리된 고기가 함유된 인스턴트 음식이나 환자 접촉을 통해 감염된다. 설사, 복통, 구토 등 위장관 증상도 동반한다. 이번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비상방역체계는 도 및 14개 시·군이 함께 운영한다. 24시간 비상연락망을 구축·유지해 집단 발생을 상시적으로 감시하며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중점을 둔다. /김재훈 기자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

전주매일 캠페인